

# 학동 참사 3개월...피해보상 “글썩요”

### 7월부터 피해보상안 협의 중 별다른 진전 없어 HDC 측 “보상안 마련해 이달 중 마무리 목표” 유가족 측 “전해들은 바 없어...해결 의지 의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세 달여가 지났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은 조금도 치유되지 않았다. 하청업체 꼬리자르기식 수사 의혹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피해보상마저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확정된 내용이 없어 더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가족 측 역시 “금시조문”이라며 HDC로부터 사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진의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변호사를 통해 HDC 측과 만나 협의하는 일정 정도는 들었지만 그 외에는 아는 게 없

다”면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면 먼저 연락을 줄 법도 한데 여태 아무 말 없는 것을 보니 해결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피해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에 집중하고 있다. HDC가 현장 인력 몇 명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하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피해보상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진의 대표는 “광역수사대에서 길면 6개월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당장은 수사가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것”이라며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진

뒤에야 피해보상이든 뭐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년 전에 일어난 비슷한 참사인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피해보상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이번 학동 참사도 보상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상금이 아까워 경찰 수사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을 버티다가 유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확실하게 시인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보상을 충분히 하는 것만이 사태를 조금이나마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북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2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공직자, 북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양성평등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 에너지공대 ‘미네르바 교육과정’ 도입 융합형 커리큘럼·능동형 학습과정 포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학생 주도의 창의적인 능동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세계적 혁신대학인 미국 미네르바 대학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 과정과 학습플랫폼 도입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켄텍이 국내 대학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심 끝에 결정했다. 켄텍은 미국 미네르바 대학의 핵심역량 과정과 최첨단 온라인 학습 플랫폼 포럼 도입을 위한 계약을 최근 미네르바 프로젝트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벤 넬슨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인 미네르바 대학이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제공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 도입 이후 뛰어난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미네르바 대학 졸업생들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 진출하거나 창업과 대학원 진학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켄텍이 도입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ForumTM'은 학습과학에 근거해 교수와 학습자간 완전한 능동적 학습을 제공한다. 학습 간 학생 참여도 실시간 분석, 특별 온라인 협업 도구 제공, 수업 전과정 녹화, 개인별 정확한 피드백 등 철저한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을 실현한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에 걸친 학습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융합형 커리큘럼과 액티브러닝(능동형 학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켄텍은 미국 미네르바 대학의 핵심역량 과정과 최첨단 온라인 학습 플랫폼 포럼 도입을 위한 계약을 최근 미네르바 프로젝트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벤 넬슨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에 걸친 학습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융합형 커리큘럼과 액티브러닝(능동형 학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일방강 교수자 중심의 온라인 학습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든 학생이 맨 앞줄에 앉아 강의를 듣는 방식'의 학습몰입이 가능하다. /이나라 기자

# “어등산관광 사업 전면 재검토를” 경실련 “서진건설 대승적 결단 필요”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협상이 결렬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광주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현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해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표류해 온 것에 대해 광주시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수익성을 앞세우는 민간사업자에게 더는 끌려다니

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사업 초기에 토지를 수용한 것은 공공성에 목적이 있었다”며 “공익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관광단지 개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된 서진건설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더는 이 사업이 공전하지 않도록 서진건설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민빈 기자

# 순천시 공무원 코로나 위로금 전액 삭감

### ‘셀프 위로금’ 게시글 쇄도 시의회 제동

〈속보〉 순천시가 코로나19 위로금 명목으로 공무원 1인당 20만원씩, 총 4억 5,400만원을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2일자 6면)과 관련, 순천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순천시의회는 2일 시가 제출한 4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를 열어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비’ 4억 5,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공무원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로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비를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670명을 포함한 공무원 2,27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으로 총 4억 5,400만 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대응에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는 등 후생 복지 차원이라고 순천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재난지원금이나 위로금과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원 670명 가운데는 시의원 24명도 지급 대상이어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순천시지부 자유계시관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셀프 위로금’

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허식 시장과 공직사회, 시의회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논란이 일자 결국 시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코로나 대응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전체 직원에게 사실상 위로금을 주는 것과 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삭감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3일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광주고검서 흥기 난동 40대 ‘구속기소’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난입해 흥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전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흥기 난동을 부렸다. 공사로 인해 법원 정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검찰 정문 주차차단

기를 들이받고 청사로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 A씨는 8층에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던 B씨와 마주치자 옆구리와 등을 찔렀으나 B씨에 의해 제압당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A씨가 반복해서 흥기를 휘둘렀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환준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40평(전용) <b>2억 3천</b>(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b>4억3천</b>(용2억6천)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b>9억</b> 매가<b>5억8천</b>(용 3억6천) 월수익 280만 (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b>010-6670-9800</b></p>	<p>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b>총 1760평</b>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 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b>010-6670-9800</b></p>	<p>◆ <b>월수익 750만</b></p> <p>◆ <b>연수익 9천만</b></p> <p>◆ <b>매매 13억</b> (용6억 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리정유, 입주맞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p> <p><b>010-6670-9800</b></p>	<p><b>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b></p> <p>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비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p> <p>•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 광산구 신가동(아파트)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9/8) 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 최저가 5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흥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p> <p>전남 회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회순군 백이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가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정)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7천 (10/12)</p> <p>시외 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p> <p><b>062-382-5500</b></p>